

The 9th Bangkok Mission Forum

■ 한국선교의 출구전략 ■

Exit Strategies and Korean Missions :
Reflections and Implications

방콕선교포럼위원회

예영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민족, 피부색,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존귀합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정신에 근거해 모든 인간이 존귀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The 9th Bangkok Mission Forum

한국선교 출구전략

Exit Strategies and Korean Missions :
Reflections and Implications

인쇄일 · 2012년 7월 27일 | 발행일 · 2012년 8월 1일

역음 · 방콕선교포럼위원회

등록번호 · 제2-1349호(1992. 3. 31) | 펴낸 곳 · 예영커뮤니케이션

주소 · (136-825) 서울시 성북구 성북1동 179-56 | 홈페이지 www.jeeyoung.com

출판사업무 · T. (02)766-8931 F. (02)766-8934 e-mail: edit1@jeeyoung.com

출판유통사업무 · T. (02)766-7912 F. (02)766-8934 e-mail: sales@jeeyoung.com

copyright © 2012 방콕선교포럼위원회

ISBN 978-89-8350-805-8(03230)

값 15,000원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제9회 **방콕선교포럼**을 소개합니다

‘방콕선교포럼’은 한국선교 현장의 과제를 논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내용을 들여다 볼 때 많은 반성과 자각 그리고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들과 선교 동원가, 신학교 선교학 교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2004년 1월 방콕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첫 포럼의 주제인 ‘21세기 한국선교를 위한 회고와 전망’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난 8년 동안 ‘한국선교와 책무’, ‘한국선교 현장의 구조’, ‘선교현장 중심 관리체제 구축’, ‘선교현장 리더십’, ‘선교사 자녀 문제’ 등을 다뤘고, 8차로 열린 방콕포럼 2011(1월10-14일)에서는 지난 7차에 걸쳐 열린 모든 포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내어 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년간의 방콕포럼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본 책의 뒷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 동안 방콕포럼의 과정과 열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선교현장의 또 다른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선교는 처음부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는 일이므로, 개척단계에서부터 철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척, 유지, 확장에는 많은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 사역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선교를 완료하거나 선교사 은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사 개인이나 단체가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번 제9회 방콕선교포럼에서는 “한국선교의 출구 전략(Exit Strategy of Korea Mission)”이라는 주제로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 발제로 출구 전략의 선교적/성경적 원리와 다양한 이론을 소개했고, 선교사(단체) 철수의 다양한 예를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출구 시기와 전략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는가를 나누고, 참가자들 간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제 발제와 다양한 예,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나눈 논의를 요약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번 방콕포럼에서 논의된 출구 전략이라는 주제가 아직 한국교회 안에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방콕포럼을 마치고 한국에서 본 주제를 다룬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선교계 안에 출구 전략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제9회 방콕포럼을 위해서 준비한 실행위원회 외에 포럼이 열릴 때 마다 방콕 현지에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양덕훈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